

# 유아의 성과 애착 안정성이 정서 이해에 미치는 영향

송 하나\*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아동학과

본 연구는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과 근교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실시하여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정 애착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손인형 과제로 아동의 정서 인식, 정서 조망 수용, 정서 추론 능력을 평가하였다. 아동의 정서적 기질을 통제 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성, 애착 안정성 각각의 주효과와 성과 애착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 조망 수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의 정서 인식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 조망 수용에 대해서는 성과 애착 안정성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는데 남아의 경우에만 정서 조망 수용이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애착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아동의 정서적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지하며 특히 남아가 불안정 애착의 영향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서의 종류나 아동의 언어 능력, 부모의 양육 관련 행동이 애착 안정성과 정서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들은 후속 연구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애착 안정성, 정서 이해, 아동의 성

아동의 정서 이해는 사회적 환경이 가정에서 학교, 이웃 등으로 확대되고 언어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는 유아기에 가장 현저히 발달한다(Saarni, 1999; Denham, 1998). 특히,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

는 능력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서 지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서 이해 능력의 발달은 아동의 인지적 능력,

---

\* 교신저자: 송하나, E-mail: jni4ever@skku.edu

어휘력(Dunn, Brown, & Beardsall, 1991) 등의 내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많은 선행 연구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정서 사회화를 가장 중요한 기제로 지적하고 있다.

대인 관계에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정서의 이름을 알거나 얼굴표정과 정서를 일치시키는 단순한 인식(awareness) 차원의 이해 뿐 아니라 상황적 단서에 따라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은 일상 생활에서 상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차적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생의 초기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경험을 강조하는 애착 이론은 아동의 정서이해 발달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애착 이론에서는 간단히, 주 양육자가 아동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애정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면 아동은 양육자를 신뢰와 애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현상과 인간 관계를 탐색하는데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Bowlby, 1969/1982, 1973). 즉, 정서적 경험을 통해 아동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다(Bowlby, 1969/1982; Bretherton, 1990; Izard, Haynes, Chisholm, & Baak, 1991). 내적 작동 모델은 아동이 정서적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 결과를 예측하게 하기 때문에 정서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애착 안정성이 아동의 정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로 요약될 수 있다. Liable과

Thompson(1998)의 논의에 따르면 첫째, 부모와 아동간의 개방적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이 정서 이해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애정적이며 상보적인(mutual) 의사소통을 말하며 부모가 자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둘 간의 조화로운 정서적 교류가 가능하게 된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안정 애착의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가 아동에게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통로이다(Bowlby, 1969/1982, 1973; Bretherton, 1990). 따라서 안정 애착된 아동은 부모와의 활발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정서 이해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내적 작동 모델은 부모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타인과 더 활발하게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활발한 정서적 경험이 정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하였다(Liable & Thompson, 1998).

애착과 정서 이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선행 연구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안정 애착아동이 불안정 애착 아동보다 유아기의 기본적인 정서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았으며(Kochanska, 2001; Otani, & Thompson, 2002), 특히, 슬픔 같은 부정 정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iable & Thompson, 1998), 또한 아동기에는 다중 정서와 혼합 정서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eele, Steele, Croft, & Fonagy, 1999).

국내에서는 몇몇 연구들이 애착과 사회정서 능력과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정서 이해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우선 애착과 정서 지능과의 관계를 연구한 유효순(2003)에서는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타인 정서 인식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 애착된 아동이 협조성과 친사회적 능력이 높고 문제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소현, 김순옥, 2006.). 그러나 이주리(2005)의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된 아동이 불안정 애착 아동보다 자기 정서 인식에서는 뛰어난 반면, 타인 정서 인식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김진아(2005)와 이지연(2007)은 애착이 정서 이해의 간접적 지표인 또래 관계나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된 수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의 불일치로 인해 어린 아동의 애착과 정서 이해와의 관계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하며 아동의 애착과 정서이해와의 관계를 자세히 검증하려 하였다.

첫째, 애착 발달에서 애착 대상의 의도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상호적 애착 형성단계는 전 애착 단계를 거쳐 만 3, 4세 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착이론의 틀 내에서 정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아기보다 유아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선행 연구들에서는 애착과 정서 인식과의 관계가 보고된 반면, 정서 이해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거의 없다. Denham과 동료들(Denham & Couchoud, 1990;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Denham et al., 1997)은 정서 이해를 세 영역으로 개념화 하였는데 얼굴 표정으로 정서를 이해하는 정서 인식(emotion recognition), 상황적 단서를 참고하여 타인의 정서를 해석하는 정서 조망 수용(affective perspective taking), 정서의 원인을 이해하는 정서 추론(causal attribution of emotion)이 그것이다. 유아기는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래 및 교사들과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는 시기이므로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

가 현저히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wis & Saarni, 1985). 또한 만 4, 5세 유아도 상황적 단서에 따라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간단한 인과 관계를 이해한다(정현심, 이순형, 2004; 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따라서, 애착 안정성이 유아의 정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 인식뿐 아니라 정서적 조망 수용 능력과 정서 추론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이 애착과 정서 이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정서 이해는 아동의 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서 인식 능력은 대부분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송하나 2005; Denham & Couchoud, 1990), 타인의 정서적 의도를 이해하는 조망수용 능력도 여아가 남아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선, 정옥분, 2002; Cutting & Dunn, 1999). 즉, 전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차는 정서 표현이나 경험을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성 고정관념이 양육 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애착과 관련하여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비율이나 분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애착과 사회능력과 관계에서는 남아의 사회 능력이 여아보다 애착 안정성에 더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Turner(1991)에 따르면, 성차는 불안정 애착 집단에서 더 분명하였는데 불안정 애착 여아는 큰 문제 행동이나 사회 부적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안정 애착 집단과도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불안정 애착 남아는 안정 애착 남아에 비해 불순응적 이었으며 자기 주장이 강하여 또래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아의 취약성

이 정서 이해와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기질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정서적 기질은 일상적인 정서적 반응 패턴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질이 애착 안정성의 분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부모의 민감성 등 애착 관련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Vaughn & Bost, 1999). 따라서 여러 가지 기질의 요소 중 아동의 정서적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정서성(emotionality)을 통제하여 애착 안정성과 정서 이해와의 관계에 대한 가외 변인의 영향을 줄이려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아동의 애착 안정성이 정서 이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무엇보다 첫째, 정서 이해를 정서 인식, 정서 조망 수용, 정서 추론을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에서 정의하여 그 각각이 애착 안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려 하였다. 또한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이 애착과 정서 이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히려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기질을 통제하여 연구 변인간의 관계를 더 명확히 밝히려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 4, 5세 아동 59명(남아 33명, 여아 26명)이었다. 아동발달 연구를 위해 아동 기록과 교사의 평가를 토대로 언어 능력과 지능에 문제가 없는 만 3-6세 백 여 명의 아동을 표집 했으며 그 중 정서 인식과제가 너무 쉽지 않고 또한

정서 추론이 가능한 만 4, 5세를 선별하였다. 또한 변인들의 screening을 통하여 극단치를 제외하고 난 59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59명의 아동들은 모두 중산층 양부모 가정의 아동들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0.44개월( $SD=2.31$ )로 남아와 여아 간 연령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 애착 안정성

유아들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3-6세 아동에게 실시되는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ASCT): 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 구성원인 인형들을 가지고 아동을 인터뷰하여 아동이 이야기의 결말을 짓도록 하는 이야기 완성 과제이다. 5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들은 어떤 갈등이나 분리, 위협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동이 무의식중에 애착관련 경험을 투사하도록 유도한다.

‘엎지른 쥬스’ 이야기는 아동이 가족과 저녁 식사 중 쥬스를 엎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으며 ‘다친 무릎’ 이야기는 공원에서 아동이 바위에 올라가다 떨어져서 다친 상황, 또한 ‘침대 밑에 있는 귀신’ 이야기는 아이들이 잠을 자러 방에 갔는데 침대 밑에 귀신을 발견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아이들을 할머니 댁에 두고 부모가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엄마 아빠의 여행’과 부모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아동을 만나는 ‘재결합’이야기가 포함된다.

실험자는 할머니, 엄마, 아빠, 형(누나), 동생(같은 성의 인형 사용) 등의 가족 인형을 가지고 각

이야기를 들려 주게 된다. 예를 들어, “00가 바위에 올라가다 무릎을 다쳤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하면 아동은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또한 누구를 도움과 애정, 위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통해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인터뷰 과정을 녹화하였고 전사한 후 Bretherton 과 동료들(Bretherton, Ridgeway 등, 1990; Bretherton, Prentiss, & Ridgeway, 1990; Page & Bretherton, 1995)이 개발한 준거에 따라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두 범주로 분류하였다. 아동이 구성한 이야기 결말의 내용, 아동의 얼굴 표정, 회피적 성향과, 태도, 이야기의 일관성, 논리성 등을 모두 분석하여 5개의 이야기 중 3개 이상의 이야기에서 가족 간의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문제 해결과 일관성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면 안정 애착으로 분류하였다. 반대로 아동이 이야기에서 파괴적 해결책, 공격적 관계를 제시하거나 회피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이야기의 주인공 인형과 등장인물인 다른 가족 인형들과의 관계를 각각 1:1로 분석하였다. 애착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들은 대부분 주 양육자인 어머니-아동 관계만을 분석하여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을 분류하는 반면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아버지, 형, 누나)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표상되면 안정 애착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유아기에 아동이 여러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애착 관계가 더 넓은 맥락으로 확장 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애착의 범주에 대해 보다 다양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매우 안정(very secure), 안정(secure), 불안정(insecure), 매우 불안정(very insecure)등의 3-4가지 범주를 사용하기도 하고 세부 유형이 모호한 경우 안정/불안정의 두 범주만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 아동의 비율이 적은 데다 5

개 이야기 모두에서 불안정인 것으로 평가된 ‘매우 불안정’ 아동이 한 명 뿐이어서 세부적인 분류를 적용하지 않았다.

도구 제작과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에게서 훈련을 받은 본 연구의 연구자가 평정했으며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 10개의 케이스에 대해 훈련 받은 다른 아동 전문가와의 일치도를 구하였다. 애착 안정성에 대한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90으로 상당히 높았다.

### 정서 이해력

아동의 정서 이해력은 Denham 등(Denham, 1986; Denham et al., 1997)이 개발한 손인형 과제(Puppet Tas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 인식, 정서 조망 수용, 정서 추론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이름처럼 손을 끼워 움직이는 손인형 들을 사용하여 아동이 인형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정서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 정서적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먼저 정서 인식은 4가지 기본 정서(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를 구별하는 과제로 인형의 얼굴 표정이 어떤 정서를 가리키고 있는지 찾도록 하였다. 정서 조망 수용과제는 아동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상황에서 주인공의 기분이 어떻게 구별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제시되는 이야기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전형적(stereotypical) 상황(예: 동물원에 가기,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기)을 포함하는 8개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아동이 비슷한 정서를 경험하는 과제이며 비전형적 과제(nonstereotypical)의 12개는 상황에 따라 아동 개개인이 느끼는 정서가 다를 수 있는 모호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기 커다란 개가 오네’라고 했을 때 어떤 아동은 기쁨을 느끼는 반면, 어떤 아동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과 다

른 정서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비전형적 과제의 제시는 각 피험자의 어머니들을 인터뷰하여 아동 개인의 정서적 성향과 반대인 상황을 구별하게 하였다.

정서 인식과 정서조망수용 과제들은 모두 여러 가지 손 인형들을 사용하여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제시되었고 언어 발달의 개인차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정서 이름 이야기하기’와 ‘손으로 얼굴 표정 고르기’로 답하게 하였다. 정확한 정서를 답한 경우에는 2점, 틀린 경우는 0점, 그리고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등 비슷한 답변에는 1점을 주었으며 이 두 과제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서 추론과제는 4가지 기본 정서에 대해 주인공 인형이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이야기하게 하고 또한 아동 자신이 어떤 때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게 한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되었다. 아동의 응답은 녹음되었고 두 명의 평정자가 타당한 응답에는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주고 평정자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른 아동 연구자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90이상이었으며 4영역의 질문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78이었다.

### 정서적 기질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기질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Denham등(Denham et al., 1997)은 정서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였는데 이 중 드물게 일어나는 죽음이나 이별, 그리고 신체적 체벌 등 몇몇 극단적 문항을 제외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것, 좋아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상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아동의 어머니에게 제시된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응답하게 하여 새로운 상황을 즐거워하거나 큰 동요 없이 적응하는 긍정적 반응에 1점, 위축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부적 반응에는 0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다섯 문항을 기준으로 한 Cronbach’s alpha는 .40으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어린 아동일수록 기질적 특성이 불분명하고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 연구 절차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로 된 도구를 연구자가 한글로 번역하고 다시 역 번역하여 번역의 질을 평가했으며 국내 학자들이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것들을 참고하여 몇 가지 용어를 수정하였다(예: 유명대신 귀신으로 수정). 위의 도구들은 어린 아동들이 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형 제작의 적합성이 예비실험을 통해 평가 되었다. 이야기 애착 완성 과제와 손인형 과제에서는 사용되는 인형 및 소품의 종류와 얼굴 표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인형을 제작하고 난 뒤 아동학 전공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에게 각 인형의 표정이 어떤 정서를 가리키는지 모호한 점이 없는지 살피게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도구를 4명의 아동에게 먼저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크게 드러난 주의력 및 어휘력의 문제는 없었다.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 아동이 재원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료실이나 원장실 구석에 책상, 의자, 인형, 소품, 비디오 카메라,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인터뷰 상황을 구성하였다. 아동과 연구자는 사전에 상호작용하여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5-10분 정도의 자유놀이 시간을 가져 아동의 긴장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하였다. 면접은

자유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일대일로 이루어졌다.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와 정서 이해 과제는 며칠의 간격을 두고 다른 날 실시되었고 전 인터뷰 과정은 녹화되었다.

## 자료 처리와 분석

본 연구의 변인인 아동의 성과 애착 안정성은 불연속 변인이다. 이 중 특히 애착 안정성은 대부분의 경우 안정 집단이 불안정 집단에 비해 3, 4배 정도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분산성 등 변량분석의 기본 가정을 지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우선 변인 별로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치를 제시한 후 애착 안정성에 대한 성차를 카이제곱 검증으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과 애착 안정성,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정서 이해능력의 각 하위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서 이해의 하위 요인들 중 정서 인식은 정서 조망 수용과 상관관이 유의하였으나 상관 값이 크지 않았고(.5이하) 또한 정서 추론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하위 요인을 개별적인 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기질이 통제 변인으로 고려하였으며 통계 처리에는 SPSS version 14.0이 사용되었다.

## 결 과

### 애착 안정성의 분류

우선 남아와 여아, 그리고 전체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살펴보면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은 전

체 59명 중 48명(81%),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은 11명(19%)이었다. 안정 vs 불안정의 비율은 대략 4:1 인데 이 결과는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대부분 보고하는 3:1의 분포보다는 안정 애착의 비율이 다소 높지만 중상위층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분포와 비슷한 것이다.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 중에서 남아가 26명(54%), 여아가 22명(46%)이었으며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 중 남아는 7명(64%), 여아는 4명(36%)으로 불안정 애착에서 남아가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카이제곱 검증을 한 결과 애착 안정성의 분포에 대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 아동의 성과 애착 안정성에 대한 정서 이해의 평균과 표준편차

아동의 성과 애착 안정성에 따른 정서 이해의 세 하위 요인의 원점수(raw score)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평균을 살펴보면 남아에 비해 여아가, 불안정 집단 보다 안정 애착집단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에 대해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 조망 수용에서 여아의 평균이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07, df=57, p=.043$ ).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원점수를 기준으로 극단치를 제외하였으나 분포의 정상성을 위해 각 변인의 표준점수(z-score)를 구하였으며 이후의 분석은 표준 점수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 아동의 성, 애착 안정성, 정서 이해 간의 상관 관계

아동의 성과, 애착 안정성, 그리고 정서 이해의 세 하위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적 기질을 통제한 부분 상관(partial correlation) 분

표 1.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에 대한 정서 이해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 변인	애착	남아 (n=33)		여아 (n=26)		전체 (n=59)	
		M	SD	M	SD	M	SD
정서 인식	안정	12.31	1.19	12.36	1.14	12.33	1.16
	불안정	11.00	1.16	12.25	1.26	11.45	1.29
	전체	12.03	1.29	12.35	1.13	12.17	1.22
정서 추론	안정	67.27	4.10	68.23	4.75	67.71	4.39
	불안정	63.00	2.89	71.50	1.00	66.09	4.87
	전체	66.36	4.23	68.73	4.53	67.41	4.48
정서 수용	안정	10.15	3.52	11.05	3.11	10.56	3.33
	불안정	8.29	4.61	10.25	2.99	9.00	4.05
	전체	9.76	3.78	10.92	3.05	10.27	3.49

석의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아동의 성(남 vs. 여)과 애착 안정성(안정 vs. 불안정)은 0과 1로 더미 코딩하였다. 아동의 성은 정서조망 수용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7, p<.05$ ) 애착 안정성과 정서 인식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r=.28, p<.05$ ).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안정 애착된 아동이 타인의 정서 표현을 더 잘 인식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 아동의 성, 애착 안정성,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이 정서 이해에 미치는 영향

앞선 상관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성과 애착 안정성이 정서 인식과 정서 조망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정서 추론은 예측 변인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상관 분석에서 성과 애착 안정성은 서로 큰 관련성이 없는 상당히

표 2. 아동의 성, 애착 안정성, 정서이해 간의 부분 상관

	1	2	3	4
1. 아동의 성	-			
2. 애착 안정성	-.07	-		
[정서 이해]				
3. 정서인식	-.15	.28*	-	
4. 정서조망수용	-.27*	.13	.33*	-
5. 정서추론	-.17	.18	.12	.28*

통제변인: 아동의 정서적 기질

\*  $p<.05$

독립적인 예측 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 보다 각각의 개별적 영향력과 둘 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알아보는 데 관심이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 변인인 정서적 기질이 고려되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의 성,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애착 안정성이 회귀식에 각각 투입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과 애착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단계별로 변인이 첨가될 때마다 회귀 모델을 평가하며 설명력의 변화량( $R^2_{\text{ch}}$ )은 이전 단계에 투입된 변인들의 주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새로 첨가된 변인의 기여도를 제시하는 지표이다. 정서 인식과 정서 조망 수용을 종속변인을 한 회귀 분석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애착 안정성이 정서 인식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_{\text{ch}}=.07, p<.05$ ), 아동의 성은 정서조망 수용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 $R^2_{\text{ch}}=.07, p<.05$ ). 특히, 정서 조망 수용에 대한 애착 안정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과 애착 안정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R^2_{\text{ch}}=.11, p<.05$ ). 상호작용 효과를 남아와 여아 별로 각각 살펴본 결과 애착 안정성이 정서 조



표 3. 정서 인식과 조망 수용에 대한 회귀 분석

예측변인	Beta	t	R <sup>2</sup> <sub>ch</sub>
[종속변인: 정서인식]			
1.정서적 기질	.10	.77	.02
2.아동의 성	-.52	-1.71	.02
3.애착 안정성	.03	.16	.07*
4.성 X 애착 안정성	.48	1.44	.03
[최종 회귀모델: R <sup>2</sup> =.14 F=2.22*]			
[종속변인: 정서조망수용]			
1.정서적 기질	-.06	-.48	.00
2.아동의 성	-.98	-3.33**	.07*
3.애착 안정성	-.31	-1.57	.01
4.성 X 애착 안정성	.86	2.67*	.11*
[최종 회귀모델: R <sup>2</sup> =.19 F=3.21*]			

\* p<.05

망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의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sup>2</sup><sub>ch</sub>=.17, p<.05).

##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정서 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상황을 단서로 타인의 정서 상태 이해하는 조망수용 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부모의 정서적 양육 행동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송하나, 2005). 부모들은 여아가 정서 표현을 할 때 더 수용적으로 반응하며 남아의 정서 표현은 통제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Fivush, 1989; Cervantes & Callanan, 1998) 여아가 타인과 더 풍부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가 정서 조망 수용 능력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 조망 수용 외에 두 하위 요인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천정

효과나 추론 능력의 발달 등을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따라 정서 이해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인식에서 안정 애착 아동이 불안정 애착 아동들에 비해 기본정서에 대한 얼굴 표정을 더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국내의 선행 연구들(유효순, 2003; Kochanska, 2001; Otani, & Thompson, 2002)에서 보고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안정 애착 아동의 부모들은 불안정 애착 아동의 부모에 비해 아동과 더 개방적이고 풍부한 정서 교류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이 부모의 정서 표현을 관찰할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얼굴 표정을 단서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Liable & Thompson, 1998; Steele et al., 1999) 달리 정서 조망 수용에서 애착 안정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가지 고려할 사실은 정서 능력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e.g., Fabes & Eisenberg, 1994; Gottman, Katz, & Hooven, 1996) 부모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아동의 부적 정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지적한 것이다. 극단적인 부모의 처벌적 반응이나 분노는 아동이 정서에 대해 생각할 기회 없이 부적 반응만을 불러 일으키지만 극단적이지 않은 수준의 부정적 양육 행동이 도리어 아동에게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모와 부정적인 정서 교류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안정 애착 집단의 아동이 어느 측면으로는 상황에 따라 타인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서의 종류와 정서 경험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서 조망 수용에 대해 아동의 성과 애착 안정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아의 경우에는 정서 조망 수용능력이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문제 행동이 불안정 애착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Turner(1991)의 연구 결과와 연관 될 수 있다. 또한 남이는 어머니와의 부정적 애착 경험에 훨씬 더 취약한(vulnerable)것으로 지적되고 있다(Collins, 1995).

여아는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정 애착 집단 간에 정서 이해 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치에서 불안정 애착 집단의 조망 수용 능력 평균이 안정 애착 집단보다 도리어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불안정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상황에서도 정서적 경험을 크게 제한 받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가 다양한 연령의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검증 될 필요가 있으며 정서의 종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기질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다루었으나 기질은 애착이나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므로 더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언어 능력에 문제가 없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야기 만들기 등의 도구는 특성 상 언어 능력이 아동의 수행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언어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진아(2005). 영아의 애착 안정성 및 기질과 보육 시설 초기 적응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2(4), 177-189.
- 곽소현, 김순옥(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송하나(2005). 4세 아동의 정서재인, 정서조망수용, 정서추론에서의 성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8(4), 17-33.
- 유효순(2003).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정서 지능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0(2), 19-31.
- 이주리(2005). 유아기 모-자녀 간 애착 유형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379-386.
- 이지선,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33(1), 17-35.
- 이지연(2007). 아동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민감성, 부모 애착 및 또래 관계. *상담학연구*, 8(1), 85-100.
- 정현심, 이순형(2004). 정서 추론 과제에서 3세 및 5세 유아의 인지적 단서 활용. *아동학회지*, 25(5), 179-191.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273-308).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Bretherton, I., Prentiss, C., & Ridgeway, D. (1990). Family relationships as represented in a Story-Completion Task at thirty-seven and fifth-four months of age.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48*, 85-105.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273-30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ervantes, C. A., & Callanan, M. A. (1998). Labels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88-98.
- Collins, V. (1995). *Human Attachment*. McGraw-Hill
- Cutting, A. L., & Dunn, J. (1999). Theory of mind, emotion understanding, language, and family background: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terrelation. *Child Development, 70*(4), 853-865.
- Denham, S.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s,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Denham S.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Denham, S., & Couchoud, E. A. (1990). Young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Study Journal, 20*, 171-192.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Denham, S.,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Fabes, R. A., & Eisenberg, N.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Fivush, R. (1989). Exploring sex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content of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Sex Roles, 20*, 675-691.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Izard, C. E., Haynes, O. M., Chisholm, G., & Baak, K. (1991). Emotional determinant of infant-mothers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2, 906-917.
- Kochansk, G. (2001).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ifferent attachment histories: the first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72, 474-490.
- Lewis, M., & Saarni, C. (1985). Culture and emotions.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pp.1-17). NY: Plenum Press.
- Liable, D., & Thompson, R. (1998).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038-1045.
- Otani, L., & Thompson, R. (2002). Patterns of attachment and maternal discourse effects on children's emotion understanding from 3 to 5 years of age. *Social Development*, 11, 433-450.
- Page, T., & Bretherton, I. (1995). *Manual for coding the expanded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Unpublished coding manual available from the authors. Madison: Waisman Center, University of Wisconsin.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The Guilford Press.
- Steele, H. Steele, M., Croft, C., & Fonagy P. (1999).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predicts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xed emotions at six years. *Social Development*, 8(2), 161-178.
- Turner, P. (1991).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4), 1475-1488.
- Vaughn, B. E., & Bost, K. K. (1999). Attachment and temperament: redundant, independent, or interacting influences on interpersonal adapt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J. Cassidy, & P.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pp. 198-225). NY: The Guilford Press.
- 

1차 원고 접수: 2008. 4.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5. 13

최종 게재결정: 2008. 5. 14

# The Influence of Gender and Attachment Security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Ha-na Song

Dep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children's gender and attachment security affect children's abilities to understand emotion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59 four- or five-year-old preschool children who live in Seoul and its vicinity. Children's attachment security was identified using a Korean version of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nd the Puppet Task was administered to the children at school settings. The Puppet Task consists of three subscales: emotion recognition, emotion perspective taking, and the causal attribution of emotion. Results showed that girls showed higher emotion understanding than did boys in emotion perspective taking tasks. Also, securely attached children identified others' facial expressions better than did insecurely attached children. Most importantly, the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 understanding was significant only in insecurely attached children, but not in securely attached children. The results were discussed within the framework of attachment theory, and gender-specific patterns of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Key words: Attachment security, Understanding of emotions, Gender*